

문화재청 홈페이지 오류 많다

문화재청 홈페이지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네티즌들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불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9월 경주문화유적답사회 김환대 회장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황당한 정보를 접했다. 엄연히 창녕 송정리 309-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동 사항을 수정토록 하겠다'라고 민원 회신을 했으나 2년이 넘도록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안동 봉황사 대웅전(경북 유형문화재 제141호)의 설명에서 '극락전 관음전 범종각 만세루'가 3번 반복되고 있는 부분 등 잘못된 정보 수정도 요구한 바 있다.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도 문화재 정보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김천 금릉 서부동 폐탑사(위)와 1997년 복원된 탑의 모습.



옹이 반복되고 있고 사적 제169호 창녕 영산석빙고의 경우 설명에는 '<여지도서>와 조선 후기의 읍지에 따르면 현감 윤치밀을 수박에 없는 입장.

문화재청의 낮은 대응으로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재청 최연구 기획정보담당관은 "민원처리가 다소 늦어지거나 자료가 빨리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은 현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도 전문가 10인을 위촉해 감수토록 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고 있는 학생이나 문화재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네티즌은 공식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

문화재청의 낮은 대응으로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재청 최연구 기획정보담당관은 "민원처리가 다소 늦어지거나 자료가 빨리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은 현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도 전문가 10인을 위촉해 감수토록 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화재 설명에서 전산상의 오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물 제70호 경주 서악리귀부의 설명에는 '만들어진 연대는 삼국통일 후인 7세기...' 등의 내

용이 반복되고 있고 사적 제169호 창녕 영산석빙고의 경우 설명에는 '<여지도서>와 조선 후기의 읍지에 따르면 현감 윤치밀이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전문설명에는 '현감 윤이일'로 표기되는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등 문화재의 부분적인 정보 오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찰문화연구소 신대현 박사는 "문화재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의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잘못된 정보의 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정보의 습득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복원 10년된 폐탑, 복원前 모습·정보 그대로 네티즌 민원 제기해도 수정않고 방치 일쑤

1번지 길가에 서있는 송정리 서 삼층석탑(보물 제520호)이 창녕문화원이 위치한 공원 안에 서 있다고 돼 있었던 것.

김 회장은 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위치정보 오류를 수정해 달라 요청했다. 만약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만 믿고 답사에 나섰다가는 본의 아니게 창녕문화원에서 허탕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귀하게서 집의하신 송정리 서 삼층석탑의 현 위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문화재 복원 등으로 인해 문화재의 정보가 변경된 것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반영 안 되기는 마찬가지.

김천 금릉 서부동 폐탑(경북유형문화재 제122호)의 경우 97년에 이미 복원이 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서부동 마을 뒤 호두산 아래 골짜기에 남아 있는 탑의 일부본들이다...'는 설명과 함께 폐탑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08호인 안동 하리동 삼층석탑도 최근 복원되었으나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학습 자료를 습득

기금 마련 등 학회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금강학술총서' 논문 공모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최기표)는 <금강학술총서> 시리즈에 수록할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금강학술총서>는 불교학의 제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자격은 불교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원 분야는 △주석과 해제논문을 포함한 불교원전의 연구 △사료 정리 및 번역 분야 등이다.

지원 금액은 1500만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구 과제를 1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수한 연구과제는 <금강학술총서> 시리즈로 출간된다. 지원서 제출 기한은 2월 27일까지다. (041)731-3601~3

경복궁 관람권있으면 고궁박물관 무료입장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소재구)은 오는 2월 1일부터 경복궁 또는 국립민속박물관 입장권 소지자에게 국립고궁박물관 무료관람을 허용한다 고 1월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에만 적용되었던 통합관람이 국립고궁박물관에까지 확대 적용되게 됐다.

통합관람요금은 현재와 같이 경복궁 관람요금(성인 3000원, 소인 1500원)으로 3개소를 함께 볼 수 있으며, 고궁박물관관 관람할 경우에는 기존 관람권(성인 2000원, 소인 1000원)을 구입하면 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관람편의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고궁박물관의 관람객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 '성보' 제7호 발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박연)는 <성보> 제7호를 최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지난해 8월 30일 열린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원고와 토론내용, 그리고 문화부 박물관팀 심주완 주임의 '서술 개운사 성보문화재 조사보고'가 수록됐다.

특히 '개운사 성보문화재 조사'는 개운사에 대한 종합적 학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조사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개운사와 그 소속사찰인 보타사에 봉안한 성보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성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유화좌상(사지)은 조선 전기 유희좌보살상에 대한 연구자료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크고, 대웅전에 있는 4점의 탱화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작품으로 당대 불교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8>

Q팩터

전기전자공학에서 사용되는 회로는 주어진 입력을 받아 필요한 출력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라디오나 핸드폰의 튜너 회로가 대표적인 경우다. 튜너 회로는 여러 방송국의 전파 중에서 원하는 전파만을 골라내는 회로다.

즉 입력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진 전파이고, 출력은 우리가 듣고자하는 전파이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신호가 매우 미약하므로 이 신호를 잘 골라낸 후, 다음 회로에서 증폭하여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튜너 회로의 역할이다.

마치 기타나 바이올린 줄의 길이를 왼 손가락으로 짚어줌으로써, 튜닝은 오른 손의 진동에 의해서 원하는 파장(음의 높낮이)만을 만들어주는 약기 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표면의 분자 구조가 빛에 대해서 독특한 Q팩터를 가지므로써 색깔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도구인 '안·이·비·설·신·의'의 6가지 방법 역시 외부 파동에 대한 독특한 Q팩터에 근거하고 있다. 내가 눈으로 빨간색으로 인식한다는 메커니즘 역시 빨간 파장에서 반사된 파동이 나의 시각 세포에 잘 골라낸 후, 다음 회로에서 증폭하여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튜너 회로의 역할이다.

소리를 듣는 귀 역시 같은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귀는 가청 파동

우주만물 원하는 파장 골라내는 능력 보유 관계속에 존재한다는 인연법 원리와 상통

과 마찬가지로 라디오의 튜너 회로는 외부의 전파 중, 원하는 파장을 골라낸다. 여러 가지 파장 중 원하는 파장을 골라내고, 원하지 않는 파장을 버리는 정도를 Q팩터(quality factor)라 부른다.

Q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원하는 파장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버리는 능력이 우수함을 뜻한다. 오래된 라디오를 들을때 다른 방송도 섞여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즉, Q팩터가 불량한 라디오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단하게 라디오나 핸드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신호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현상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빨간색 파장은 빨간색의 빛 파동에 대해서 Q팩터가 매우 낮은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파동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사함으로써 우리가 빨

에 대해서만 Q팩터가 큰 세포구조를 가지고 있고 초음파에 대해서는 공진할 수 없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 박쥐의 귀는 초음파에 대해서는 큰 Q 팩터를 가짐으로써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초음파로 태아를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태아의 몸이 초음파에 대해서 Q팩터가 작은 물질로 되어 있어 초음파를 반사함으로써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이 인식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메커니즘, 존재들끼리의 관계 양식, 그리고 우리가 철단 시설로 이용하는 수많은 기계들이 이러한 파동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Q팩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존재가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인연의 원리일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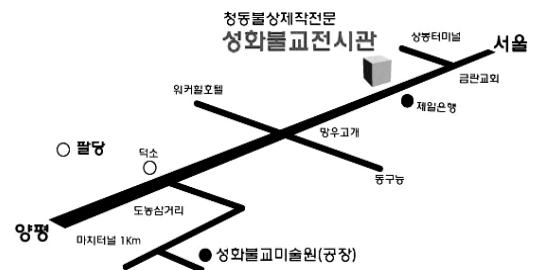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타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대창빌딩 1층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익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서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서행정상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